



S-OIL MAGAZINE
May 2015

Vol.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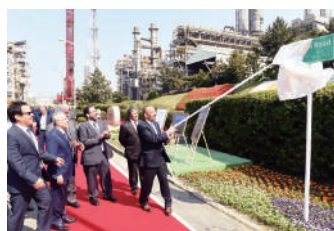
05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사우디아람코 이사회 공장 방문

19 포켓 석유상식
석유탐사와 시추

20 햇살나눔
제주 햇살나눔 캠프

38 내 마음의 미술관
강릉시립미술관



사우디아람코 이사회 공장 방문



SUPER 프로젝트 시설 개선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 사우디아람코 이사회 공장 방문
- 2015 챔피언스 클럽 시상 및 인센티브 투어
- CEO 서울대 특강
- 주유소 아너스 클럽 간담회
- SUPER 프로젝트
중질유분해시설 반응기 설치
- 페트로 라빅 운전원 교육

14

소식 모아보기

- 노란경품대잔치
- 동부지역본부 새봄맞이 이벤트
- 물류부문 안전순회
- 유류 수송차량 안전문화 캠페인

통권 제402호

발행일 2015년 5월 2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 · 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17

단신

-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제 'S-OIL 요소수' 판매
- 농협과 지역농산물 산비소비 협약

19 포켓 석유상식

- 석유탐사와 시추

20 햇살나눔

- 햇살나눔 스토리보드
– 제주 햇살나눔 캠프
- 햇살나눔 후기 · 단신

27 두런두런 수다방

- 서양화 개인전시
- Controller부문 춘계 산행



30 열정 24시

- IR팀 신동만 사우
- HOU혁신2과 윤효성 사우

32 No.1 주유소

- 속초 구도일주유소



34 가족 이야기

- 가족이라면 우리처럼 행복의 꽃송이 피워요
– 동력3과 김규식 사우 가족

36 애호가의 수첩

- 수의사 한수

38 내 마음의 미술관

- 강릉시립미술관

40 섬을 걷다

- 서해 고틀머리
연기에 가린 듯 신비한 보물섬
– 보령 외연도

44 100세 습관

- 목 자세 습관

46 나의 롤모델

-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랑꾼 가수 '션'
– 기계과 박민 사우

48 열린 서재

- 〈클로즈업 오사카〉 유재우 · 손미경

50 편집공지/독자엽서



혁신성장의 길을 따라

사우디아람코 이사회 공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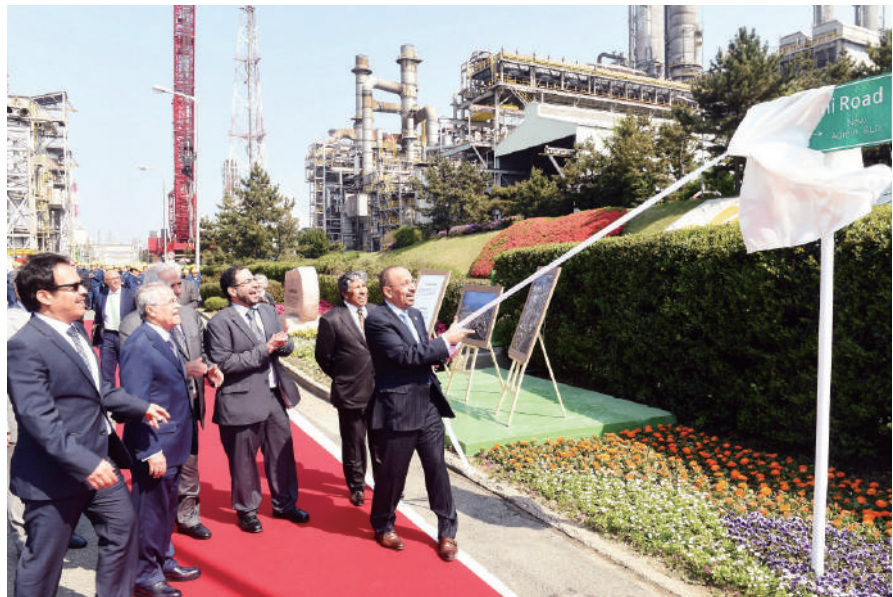
사우디아람코가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광물부장관을 비롯한 이사진이 온산공장을 방문했다. 알 나이미 장관을 비롯한 이사진은 나이미 로드 명명식에 참석하는 한편 공장을 둘러보며 회사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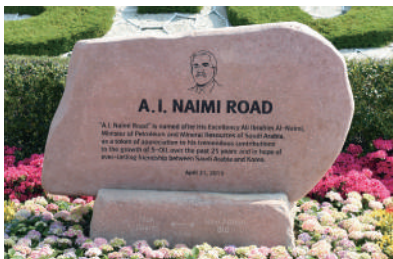
더 높은 도약 꿈꿉니다

사우디아람코 이사진이 4월 23일 온산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알 나이미 장관과 알 아사프 재무장관, 알 모니프 최고경제회의 사무총장, 알 팔리 총재 등 사우디아람코 이사진 및 관계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동행했다.

알 나이미 장관 일행은 임직원의 환대 속에 공장에 도착해 곧바로 나이미 로드 명명식(A. I. Naimi Road Naming Ceremony)에 참석했다. 우리회사는 알 나이미 장관이 사우디아람코 총재로 재임한 1991년 당시 우리회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고 이후 25년간 회사 발전에 공헌한 뜻을 기념하기 위해 ‘나이미 로드’를 지정했다. 나이미 로드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구분하는 온산공장의 핵심도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신본관부터 ‘도약의 다리’를 넘어 목도 앞까지 약 1.3km에 해당하는 도로다.

마하서 CEO는 명명식에서 알 나이미 장관의 공적을 비롯한 나이미 로드 명명 배경, 나이미 로드 위치 설명 등으로 사우디아람코 이사진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어 표시석과 표지판 제막을 통해 명명식을 자축하고 표시석이 위치한 학남천 화단 주변을 둘러보며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알 나





이미 장관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그간 회사의 눈부신 발전이 모두 임직원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하며 지속성장을 통한 밝은 미래에 대해 확신의 뜻을 밝혔다.



성공신화 이루어낸

우리 모두가 챔피언



2015 챔피언스 클럽 시상 및 인센티브 투어

주유소 · 충전소의 명예로운
큰잔치 '2015 S-OIL 챔피언스
클럽' 시상식이 개최됐다.
경쟁이 심화된 시장 여건
가운데 남다른 서비스와
탁월한 운영 능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주유소 · 충전소
총 50개소가 챔피언스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2015 S-OIL 챔피언스 클럽' 시상식이 4월 15일 그랜드하얏트인천(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에서 개최됐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챔피언스 클럽에 등극한 50개소 주유소 · 충전소 대표자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며 상패를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장에는 나세르 CEO를 비롯해 류열 수석 부사장, 신동열 부사장과 전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지사 및 본사 소속 임직원 등이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유소 · 충전소 대표자와 관계자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올해 챔피언스 클럽 대상에는 셀프광장주유소(이의표 대표)가 선정됐다. 셀프광장주유소는 영업 성과와 운영수준, 판매역량, 수익성, 회사정책협력도 등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 외에 지역별, 운영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한 42개 주유소와 충전소 7개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포함된 8개소는 우리회사와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고락을 함께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아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하서 CEO는 주유소 · 충전소 대표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시상식장에 들어섰다. 참석자들과 함께 개막 영상을 관람한 마하서 CEO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 11회째를 맞은 챔피언스 클럽 시상식은 주유소 · 충전소 운영의 성공 신화를 공유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날 행사의 각별한 의미를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변함없는 신뢰와 애

정으로 성공의 기회를 모색하며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현 시점을 환기하면서 “우리 주유소와 충전소들이 한층 높은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행사는 선정경과 보고와 하이라이트인 시상식, 오찬과 축하공연으로 꾸며졌다. 참석자들은 만찬과 건배 제의로 챔피언스 클럽 등급을 자축하며 초청가수 '바다'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즐겼다.

참석자들은 시상식 뒤에 태평양 휴양지 괌(Guam)으로 인센티브 투어에 나섰다. 4박5일 동안 진행된 괌 투어에서 수상자들과 임직원들은 치열한 시장 경쟁의 시름을 잠시나마 접어두고 깊은 우애를 다지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에너지를 가득 충전했다.



대상 셀프광주주유소 이의표 대표 경기도 하남시 창우로

최우수상 선화제일주유소 이정하 대표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화산주유소 정순옥 대표 강원도 강릉시 관솔길 문수로주유소 이상현 대표 울산시 남구 문수로 ㈜남양주에너지 이종열 대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우수상 잠실주유소 이승환 대표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그린에너지컴퍼니아이콘주유소 윤원태 대표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경양주유소 허종희 대표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돌고래주유소 주민호 대표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한솔주유소 강장옥 대표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유)군장셀프주유소 이동훈 대표 전북 군산시 백룡로 모화주유소 박영철 대표 경북 경주시 산업로 제철도춘주유소 고영숙 대표 전남 광양시 강변로 금호주유소 이상우 대표 충북 증평읍 증평읍 광장로 철석주유소 김귀철 대표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먼목주유소 이재형 대표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소방주유소 김유재 대표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만세길 대학주유소 석주현 대표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신사주유소 안창섭 대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하이트주유소 이주영 대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팔공산IC주유소 변시영 대표 대구시 동구 공항로 서영주유소 김종권 대표 경북 구미시 왕산로 중부주유소 유광현 대표 경북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 ㈜경주아이씨에스주유소 황경환 대표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삼일주유소 김영길 대표 울산시 남구 대학교 경남주유소 구동준 대표 경남 창원군 창녕읍 갈천길 세인리무진직영주유소 김영달 대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진성주유소 이병은 대표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세광주유소 강찬산·김동원 대표 대전시 대덕구 동서대로 거산주유소 이윤재 대표 충남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대덕클린주유소 김기영 대표 충북 음성군 생곡면 음성로 운수주유소 강경윤 대표 광주시 광산구 동곡로 빛가람주유소 김은근 대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흥남주유소 박청동 대표 전북 군산시 팔마로 신흥주유소 전학군 대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에스석유부산진주유소 정병오 대표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유림충전소 유재원 대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하양우성LPG충전소 우현욱 대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유)승춘에너지 최환갑 대표 경북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 ㈜남산가스충전소 김희철 대표 울산시 남구 남산로 장산가스충전소 윤용남 대표 충남 태안군 태안읍 근흥로 부광LPG충전소 백윤식 대표 전남 광양시 백운로

특별상 동남주유소 전학산 대표 인천시 남동구 담방로 극동주유소 배현욱 대표 대구시 달서구 아외음악당로 북천주유소 박기형 대표 경북 상주시 경성대로 ㈜드림오일천안주유소 신현기 대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햇남주유소 정이훈 대표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신광주주유소 김성규 대표 광주시 광산구 목련로 성산주유소 우미라 대표 충북 제천시 북부로 일도주유소 강민수 대표 제주도 제주시 고마로

인센티브 투어 후기

셀프광장주유소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이의표 대표

대상이란 영예를 안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식부터 투어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행사 실무자의 세심한 배려를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 투어 참석이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여행지였습니다. 여행을 모두 마치니 4박5일 일정이 무척 짧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 저녁식사를 마친 뒤 임직원의 큰절을 받으니 감동은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로도 동반자의 입장에서 보다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산가스충전소

꿈의 휴양도시 괌에 다녀왔습니다

— 홍정희(김희섭 대표 아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절과 휴가를 보내 본 적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처음 챔피언스 클럽 선정 소식에 적잖이 놀랐고 행사장으로 향하면 서도 설레는 마음이 계속됐습니다.

모두가 대상을 받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낮과 밤이 모두 환상적이던 괌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신나게 한마음 되어 소리 지르고 춤추며 마음으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에쓰-오일의 주인이고 진정한 가족이라 느꼈습니다.

에쓰-오일과 만난 지 7년. 성실한 나의 남편, 애인이자 학교, 놀이터인 그 사람에게 진심 담긴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건강 챙기면서 함께 이뤄나가요. 여보, 사랑합니다!”

(유)군장셀프주유소**영원한 챔피언스 클럽 등극을
다짐합니다**

- 이동훈 대표

칠십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언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아내와 손잡고 여행하며 웃음보따리 풀어놓을 일이 말입니다.

감사와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장기자랑에서 우수상 받은 아내 덕에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로부터 받은 박수와 여행기간 동안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직원 여러분의 땀이 기억에 남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내년에도 챔피언스 클럽에 선정되어 다시 한 번 여행 오자고 합니다. 그 말에 걱정이 태산입니다만, 에스-오일 깃발 아래 최선을 다해 주유소를 운영한다면 아내의 바람을 이뤄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의 힘을 믿어보려 합니다.

**(주)남양주에너지****안락한 여행으로
호사를 누렸습니다**

- 이종열 대표

챔피언스 클럽 인센티브 투어도, 남태평양의 유명 관광지 광도 제게는 모두 처음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실제 투어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광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참가자들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깨끗한 호텔방과 추가비용 지불 없이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접이 훌륭했습니다.

첫날은 비도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다음날부터는 쾌청한 하늘이 지속되었습니다. 광의 풍광은 정말로 아름다웠고, 식사, 관광, 쇼핑기회 등 세심하게 준비한 일정에 굉장히 안락하다고 느끼며 투어를 즐겼습니다.

처음 참가한 투어지만 어색함 없이 즐겁게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해준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생한 목소리로

인재와 소통합니다



CEO 서울대 특강

나세르 알 마하서 CEO가 서울대학교 강단에 섰다. '공학기술과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마하서 CEO는 약 2시간에 걸쳐 한국 정유산업의 미래와 우리 회사의 전략적 비전에 대해 밀도 높은 정보를 전했다.

우리 회사는 우수인력 유치를 도모하고 산학협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 강의를 개설하고 관련 학부와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에 3월부터 4개월간 '공학기술과 경영' 수업이 개설됐으며, 나세르 알 마하서 CEO가 수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일 강의에 나섰다. 이번 강의에 앞서 마하서 CEO는 해당 학부의 겸임교원으로 임명됐으며, 우리 임원들이 차례로 강단에 올라 현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교육현장에 전하고 있다. 특히 공학과 경영학 주제를 전체 교육과정에 균형적으로 배치해 공학 전공 학생들의 지식의 폭을 넓히고 강좌 이외에도 개강 및 종강 모임, 공장 방문, 간담회 등을 마련해 우수한 학생들과의 소통 기회를 최대화하고 있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통한 경쟁의 장을 열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리 직원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마하서 CEO의 특강 현장에는 기존 수강생뿐 아니라 이번 강의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자리를 채웠다. 학생들은 한국 정유업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 과제, 극복 전략 등으로 구성된 충실한 강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핵심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으로 수업에 적극 참여했다. 강의 뒤 진행된 리셉션에서는 강사로 임명된 우리 임원들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업 전반의 정보는 물론 인생 선후배로서의 조언 등으로 허심탄화하게 소통했다. 또한 마하서 CEO는 이건우 공대학장, 김재정 화학생명공학부 학부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 회사와 서울대 간 산학협력 강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생의 미래

주유소 아너스 클럽 간담회

챔피언스 클럽 대상 수상을
통해 탁월한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리더들의 모임인
아너스 클럽이 간담회로 반갑게
마주했다. 신규 멤버와 함께한
아너스 클럽은 우리회사와
주유소의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아너스 클럽이 열어갑니다

주유소 아너스 클럽(Honors Club) 간담회가 4월 6일 안양베네스트컨트리클럽(경기도 군포시 군포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너스 클럽 멤버인 8개 주유소 대표자 전원과 류열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들이 참석해 반가운 만남을 이어갔다.

주유소 아너스 클럽은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챔피언스 클럽에서 대상에 등극한 주유소 중 선정된 주유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탁월한 운영 능력을 발휘해 우리 브랜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굳건한 신뢰를 형성해 타의 모범이 되는 주유소 대표자의 정예 모임이다.

올 상반기 간담회는 야외활동을 접목해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함께 자리한 주유소 아너스 클럽 대표자들은 지난해 아너스 클럽 시행 내역과 올해 영업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신규 멤버로 선정된 권석재(시흥터미널주유소)·이승영(레인보우주유소) 대표에 대해 위촉패 증정도 이뤄졌다.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소감을 전해왔다. 아너스 클럽에 새로이 합류한 이승영 대표는 “에스-오일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상생의 동반자로서 자부심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프로젝트 대장정

SUPER 프로젝트 중질유분해시설 반응기 설치

SUPER 프로젝트 일환의
중질유분해시설 신규 반응기
설치 작업이 마무리됐다.
최대 800여 톤 규모의
반응기 설치가 오차 없이
진행 · 완료된 데 이어
향후 업무추진도 순항이
예상된다.

소중한 발걸음 이어갑니다

온산공장 시설개선 프로젝트(이하 SUPER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 가운데, 프로젝트 일환의 중질유분해시설(이하 HYC) 신규 반응기 설치 작업이 4월 22~24일에 걸쳐 완료됐다. 22일 0시 육상운송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오후 1시에 1기 설치를 완수하고, 24일 오후 2시 2기 설치까지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신규 설치된 반응기는 각 800톤과 389톤 무게로, 대략의 높이가 각 35미터와 20미터에 이른다.

SUPER 프로젝트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기존 사업의 운영효율성을 높여 한층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질유분해시설과 아로마틱공장 및 윤활기유생산시설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능력을 증대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공장 운영비 절감 등을 실현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공정 라이선서와의 타당성 조사 및 기초설계를 통해 투자계획을 도출하고 지난해 말 이사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SUPER 프로젝트는 공사 규모와 실행 효율성을 감안해 크게 세 부문(패키지 1·2·3)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 가운데 프로젝트의 서막을 여는 HYC 신규 반응기 2기 설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마무리함에 따라 뒤이어 추진될 업무도 임직원의 헌신과 굳은 확신 속에 순항이 예상된다.



세계 수준 선도기술로



쾌속 성장 이릅니다



페트로 라비 운전원 교육

사우디아람코 관계사인 페트로 라비의 요청으로 온산공장에서 운전원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설비 분야에 대한 집합교육을 비롯해 생산현장 교육으로 구성되며, 10월 중순까지 진행 예정이다.

페트로 라비(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이하 PRC*)의 운전원 대상 교육이 온산공장에서 4월 20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교육은 2016년 신규 공장의 상업가동을 앞두고 PRC 운전원의 공장안전능력 배양을 위해 PRC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PRC 교육생 29명은 온산공장에 머물면서 아로마틱, 파라자일렌, MTBE 공정에 대한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교육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교육생들은 정유공장 운전경력을 2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한 운전원으로서 사우디인과 인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한 달은 반응기, 열교환기, 가열로, 스팀 보일러 등 설비 분야에 대한 공통교육이 이루어지며, 이후 아로마틱 및 파라자일렌 공정에 관해 10월 중순까지, MTBE 공정에 관해 6월 중순까지 공정 집합교육 및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에 참가 중인 아흐메드 알 자라니(Ahmed Al-zahrani) 씨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에쓰-오일에서 선진 공정 운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뜻깊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샤일리쉬쿠마 파텔(Shaileshkumar Patel) 씨는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업무 내외적으로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PRC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라비 지역에 위치한 원유정제능력 하루 40만 배럴의 석유화학업체로서, 사우디아람코와 일본 수미토모의 합작회사다.

소식 모아보기

팀/과, 부/부문 단위의 이모저모를
정리합니다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는 희망찬 에너지 노란경품대잔치



우리 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과 보너스카드 홈페이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경품대잔치’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성원해온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희망찬 에너지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품행사는 총 120만여 명에게 행운의 기회를 활짝 열어두고 고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치 주유권을 비롯해 에어컨, 여행상품권, 엔진오일, 류현진 사인볼 등 푸짐한 경품의 행운은 주유소·충전소 현장과 보너스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계열 주유소·충전소에서 4만 원 이상 주유하거나 2만 원 이상 충전한 뒤 보너스카드로 적립하면 영수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럽(舊스마트월렛)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보너스카드 회원 가운데 1만 명에게 모바일 주유권을 제공하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퀴즈 응모로도 모바일 주유권의 행운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경품대잔치를 통해 1년 치 주유권(3명, 각 300만 원), 삼성 에어컨(5명), 여행상품권(10명, 각 30만 원), ‘S-OIL7’ 엔진오일(300명, 각 1박스), 류현진 사인볼(1만 명), 모바일 주유권(2만 명, 각 3천 원권) 등을 총 120만여 명에게 제공해 고객 사랑에 보답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너스카드 홈페이지(www.s-oilbonu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구자현(브랜드마케팅팀)

현장당첨	1년 주유권 (300만 원) 삼성 에어컨 진라면 매운맛 3개입 동원보성녹차 350ml 구도일 키즈밴드	3명	세금(22%) 당첨자 부담 현장 즉석지급
		5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온라인 응모	S-OIL 여행상품권 (30만 원) S-OIL 여행상품권 (10만 원) S-OIL7 엔진오일 1박스 류현진 사인볼	10명	세금(22%) 당사 부담
		50명 300명 5천 명	
시럽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주유 3천 원권	1만 명	5월 1일, 18일 각 5천 명 선착순
카카오톡	모바일 주유 3천 원권	1만 명	4월 27일~5월 7일 플러스친구 퀴즈 응모

꽃 한송이에 성큼 다가온 주유소의 봄

동부지역본부 새봄맞이 이벤트



동부지역본부가 봄을 맞아 기분 좋은 이벤트를 마련하고 고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고객의 화사한 웃음을 되찾아 드리고 주유소에 밝은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새봄 화사한 꽃향기를 소중한 고객님께'라는 타이틀로 꽃 증정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속된 이번 이벤트에는 총 38개 주유소가 동참했습니다. 이 가운데 장미 2천200송이와 일년초 7천440개, 꽃 1만 2천800봉지 등을 준비하고 이벤트를 알리는 현수막도 마련했습니다.

고객들은 주유소에서 꽃을 선물한다는 점에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벤트를 알리는 현수막을 접하고 일부러 우리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화사한 꽃을 받으니 청혼 받는 기분이다'며 웃는 고객은 물론, '선물 받은 화분을 보며 매일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고객도 계셨습니다. 주유소에서는 이번 이벤트로 주유소 분위기가 밝아져 좋았다는 의견과 함께 '고객에게 장미를 전하며 우리 직원들이 더 즐거워하더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각박해진 사람들 마음이 꽃 한 송이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경쟁 속에서 가격이 아닌 소박한 아이디어로 또 다른 승부를 걸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이벤트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고민하는 우리의 진정성이 고객 마음을 움직여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글 김석연(동부네트웍관리팀)



꼼꼼한 점검으로 실현하는 무재해 사업장

물류부문 안전순회



올해 2분기 물류부문 안전순회(safety walk-through)가 4월 10일 군산저유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안전순회는 정기적인 임직원 안전 점검으로 시설 개선과 안전정보 기술 교환을 실현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임희승 상무와 저유관리 팀 송호성 저유관리팀리더, 김은룡 인천저유소장, 신동일 영천저유소장, 각 저유소 안전관리자(safety engineer) 등 총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임희승 상무는 제반 안전점검을 마친 뒤 군산저유소의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직원 모두가 안전의식을 생활화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유소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글 이영석(군산저유소)

유류수송 안전의 모범 문화 가꾸기

유류 수송차량 안전문화 캠페인

유류 수송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이 우리 제품의 육상 수송을 담당하는 운전원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유류 수송차량의 사고가 회사뿐 아니라 운전원과 고객 모두에게 큰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난해 9월 운전원 대상의 안전실천 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송업무 단계별로 안전실천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한 데 이어, 동영상 제작 배포, 세미나, 교육 등 다각도로 안전의식 강화를 도모해왔습니다. 또한 안전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캠페인을 통한 활성화가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전국 출하처에서의 현장활동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인 가운데, 향후에도 캠페인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글 홍영목(수송팀)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제 'S-OIL 요소수' 판매



우리회사가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제인 요소수를 판매한다. 회사는 4월 7일 요소수 제조사인 KG케미칼과 요소수 PB(Private Brands Products) 상품 판매에 관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 30일에 전국 계열주유소에서 'S-OIL 요소수' 판매를 개시했다. 요소수는 버스, 트럭 등 상용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주입하는 액체로,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한다. 올해부터 유럽의 배기가스 환경기준인 유로6가 국내에 적용되면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회사는 전문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요소수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판매로 고객 저변을 넓혀갈 전망이다.

농협과 지역농산물 산비소비 협약

우리회사가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와 농산물 산지 소비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온산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김용연 전무와 김재철 울산농협지역본부장, 정차길 온산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회사는 2001년부터 온산지역의 친환경 우렁이 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쌀 40kg 9만여 포(약 59억 3천만 원 상당)를 매입해오고 있으며, 2004년부터 공장 인근지역 과수농가에서 생산된 배 3만 2천785여 상자(10억 8천만 원)를 구매했다.



임원동정

4.30 신성도 상무(재무Specialist) 정년퇴임

인사동정

보직변경

4.15 김양규(3급.광주지사 판매담당)→아산지사(판매담당) 유제호(4급.아산지사 판매담당)→청주시사(판매담당) 채만기(5급.서부영업지원팀)→광주지사(판매담당) 조아라(4급.고객서비스팀)→멤버십마케팅팀

김판홍(정유생산부 Safety Foreman) 서대환(유탄생산부 Safety Foreman) 심우화(분해1부 Safety Foreman) 김우찬(분해2부 Safety Foreman) 문대근(분해3부 Safety Foreman)→정유생산공장 Safety Foreman 박정규(Aromatics생산1부 Safety Foreman) 김봉기(Aromatics생산2부 Safety Foreman)→Aromatics생산공장 Safety Foreman 박영래(제품운영부 Safety Foreman) 류강희(제품출하부 Safety Foreman) 이길우(동력1부 Safety Foreman) 진호건(동력2부 Safety Foreman) 박동욱(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송유/동력공장 Safety Foreman 박성섭(설비관리계획팀)→설비관리계획팀 Safety Foreman 박장(건설팀)→건설팀 Safety Foreman 최재수(안전보건부 안전과)→정유생산공장(Safety Staff) 박평수(안전보건부 안전과)→Aromatics생산공장(Safety Staff) 이동석(안전관리부 안전관리과)→송유/동력공장(Safety Staff) 이성범(분해2부 분해2과)→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4.27 최영수(1급.기술교육팀리더)→Reliability/기술본부장 보좌역 오형철(2급.인사후생부 인사과장)→기술교육팀리더(대행) 나유웅(3급.인사후생부 인사과)→인사후생부 인사과장

4.30 전준수(2급.지속가능경영팀)→경영기획팀 김창원(4급.생산조정팀)→감사팀

5.1 장재천(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교대계장)→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김준태(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교대계장 신동훈(장치부 장치2과)→장치부 장치1과 강기태(분해2부 분해2과)→분해1부 탈황1과

5.6 김수현(5급.소매관리팀 부)→중부영업지원팀 박원민(5급.소매관리팀 부)→동부영업지원팀 윤도현(5급.소매관리팀 부)→서부영업지원팀

해외유학 파견

4.26 이경문(3급.경영기획팀)→인력개발팀 부(휴직)

정년퇴직

4.30 강진홍(업무부 총무과)

퇴직

4.30 임성훈(5급.서부영업지원팀)

5.4 노형섭(2급.구매팀) 고이곤(운전원.분해1부 탈황1과)

부음

4.6 오재복(유탄2과) 병부

4.7 정영락(리스크관리팀) 조모

4.11 이치성(검사부) 병부

4.20 이재복(PX생산2과) 모친

4.23 최상걸(품질관리2과) 병모

4.28 안인기(예방정비2과) 부친

결혼

4.18 서해봉(품질관리2과)

4.19 임용현(분해1과)

4.25 안성환(건설팀) 딸

4.26 최주환(계기1과)

노지권(HOU혁신1과)

5.2 이홍규(Downstream추진팀)

5.3 최병국(총무과) 딸

5.9 최승민(유탄가유해외마케팅팀)

박승희(RHDS공정과)

조우현(인천지사) 딸

석유탐사와 시추

석유사업은 크게 산유단계인 상류부문과 생산·유통단계인 하류부문으로 나뉜다. 탐사부터 시험, 개발, 수송, 출시까지 대체로 3~10년이 소요되는 과정 속에서 정유사는 하류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상류부문은 석유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석유탐사와 검증작업에 해당하는 석유시추를 포함한다.

석유부존 4대 필수요소를 확인하는 과정, 석유탐사

석유탐사는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및 시추탐사를 실시해 석유의 생성, 이동, 집적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파악하고 시추 탐사작업을 통해 석유의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먼저 지표지질조사가 선행된다. 지표지질조사는 야외에서 노두를 조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노두 조사를 통해 지층의 형성시기, 근원암 및 저류층의 발달가능성, 지각운동의 흔적(단층, 화산활동 등) 및 지층의 형태 등을 파악하고 지하지질구조 및 석유 부존 가능성을 예측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석유부존 가능성이 예측되면 물리탐사에 들어간다. 물리탐사는 중자력 탐사와 탄성파 탐사로 나뉜다. 중자력 탐사는 지하에 분포하는 암석의 밀도와 자력의 특질차이를 이용해 중력 및 자력값을 측정하고 지하의 암석분포나 퇴적분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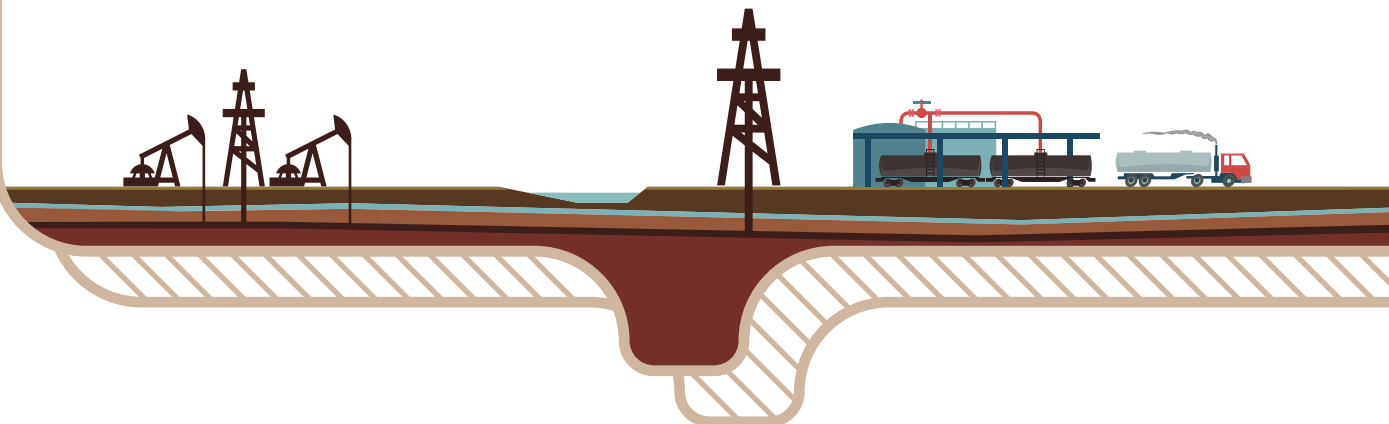
구체적인 중자력 탐사의 결과가 나오면 탄성파 탐사에 들어간다. 탄성파 탐사는 지표 또는 해상에서 인위적으로 탄성파를 발사해 지하지층의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반사파를 기록하고 전산처리 및 해석 작업을 거쳐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1km~수십km에 해당하는 광역에서 수직 지층단면도를 구하는 2차원 탐사 뒤 범위를 좁혀 시추위치 선정 및 매장량 평가 등 정밀탐사에 해당하는 3차원 탐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통해 지층구조를 해석하고 매장량 평가, 위험도 분석 및 시추위치 선정이 이루어진다.

석유의 존재유무와 생산가능성을 결정하는 과정, 석유시추

탐사를 통해 석유 부존 가능성이 확인되면 석유시추에 들어간다. 시추탐사는 석유 매장이 예상되는 지역을 직접 굴착해 검증작업 또는 산출시험을 통해 부존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성 있는 저류층으로부터 석유를 회수할 목적으로 유정을 굴착하는 과정을 말한다.

육지시추와 해양시추로 구분되는데, 시추에 필요한 장비가 갖춰진 유정탑 기증기인 리그(Rig)의 지지방법, 다시 말해 리그를 땅이 받치고 있느냐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 받치고 있느냐의 차이다. 해양시추는 바다의 깊이에 따라 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얇은 바다의 플랫폼식, 3~6개의 다리를 해저면에 고정하는 잭업식, 근해의 반잠수식과 심해시추용 완전부유식이 있다.

시추탐사는 지하에 직접 구멍을 뚫어 탐사하게 되는데 음파, 중성자, 전자, 감마선 등의 인공파를 발사해 기록하고 해석하는 물리검층을 통해 암석 내 빈 공간에 탄화수소가 들어있는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탄화수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생산능력 시험을 확인하기 위해 시추관의 하부에 특수한 밸브와 패커를 붙여 내려 보내 산출시험을 실시하고 지층압력과 생산량을 측정해 석유 생산을 결정하게 된다.





아픔 날려보내는 건강한 봄 나들이

제주 햇살나눔 캠프

우리회사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희귀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22명과 가족, 사회복지사 등 100여 명을 제주도로 초청해 '제10회 햇살나눔 캠프'를 열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백혈병, 담도폐쇄증, 댄디워커증후군 등 희귀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공항 도착

부산, 대구, 청주, 원주에서 출발한
희귀 난치질환 어린이와 가족,
사회복지사가 드디어 모두 모였다.
즐거움 10번째 햇살나눔 캠프 출발!



트랙아트 체험

트랙아트 전시관 '박물관은
살아있다'에 간 참가자들은 각종
트랙아트 전시물에서 사진을 찍고
놀라운 사진에 즐거워했다.

한라봉 체험

제주하면 역시 한라봉을 빼놓을 수
없다. 한라봉 체험농장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가족 당 10개의 한라봉을
수확해 달디달게 맛보았다.





희망풍선 날리기

어느 능선에서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용눈이오름에 오른 참가자들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희망풍선을
하늘로 띄워보냈다.

성산일출봉 나들이

성산일출봉에 찾아가 참가자들은
제주의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봄날을 만끽했다.



아쿠아플라넷 체험

참가자들은 아쿠아리움의
환상적인 바다 풍경 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들과 눈을 맞추었다.

폐회식

2박3일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
밤, 참가자들은 폐회식을 즐겼다.
미술사의 미술과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지는 가운데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제주 햇살나눔 캠프가 끝나고...

가은아, 너는 어마의 보물 1호야

- 최가은 어린이 엄마 박선희

5년 전 감기로 병원에 갔다 너의 병명을 듣고 놀랐던 그날이 떠오르는구나. 아픈 가은이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빛나는 어마의 보물 1호란다. 가은이가 아프던 그때 엄마는 굉장히 힘들었다. 첫째인 사랑이는 다섯 살이었고, 뱃속에는 셋째가 자라고 있었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빠 덕분에 힘든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단다.

가은이가 일곱 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을 엄마는 잊을 수가 없구나. 우리 가은이는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장난기가 많아서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잘 어울렸어. 엄마는 그런 가은이의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어.

가은아, 엄마의 작은 바람은 가은이가 지금 먹고 있는 약 끊고, 병원 외래도 가지 않고, 싫어하는 채혈도 하지 않을 만큼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란다. 앞으로도 우리 다섯 식구,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자.

사랑하는 딸 가은아!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아빠의 사랑스러운 아들 태호야

-이태호 어린이 엄마 김미진

엄마아빠의 사랑스러운 아들 태호야
우리 태호, 그 힘든 항암치료도 잘 견뎌주고, 몸은 불편해졌지만 늘 밝은 모습으로
엄마, 아빠 곁에 있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개구지고 장난도 많이 쳐서 엄마가
가끔 혼내지만 엄마는 너의 그런 모습들도 좋고 또 고맙단다.
걱정과 달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생활도 잘 해나가는 네가 참
대견스럽다. 특히 1학년 반장이 됐을 때는 무척 자랑스러웠단다.
동생 공부를 도와주고 책도 읽어주는 태호가 있어 엄마는 무척이나 기뻐. 사랑해!



현지가 가족들에게

- 김연지 어린이

내일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에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제주도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일주일 전이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이 기대됐어요. 전 맨날 아주 멀리는 아니지만,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멀리 멀리 가면서 즐겁게 노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한가지인데, 제주도와 와서 기분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공연 및 후원금 전달

글 김승배(홍보팀) 사진 전부순

우리회사가 발달장애청소년들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지속적인 활동을 염원하며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4월 7일 문화예술&나눔캠페인 점심 공연과 더불어 본사 로비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안중범 부사장은 회사를 대표해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신인숙 이사장에게 후원금을 전하고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의욕적인 연주활동을 응원했습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장애 청소년의 재능 계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2006년 3월 창단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50명의 청소년 단원들이 1천 번 이상 연습 끝에 감동의 연주를 들려줘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불립니다.

우리회사는 장애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2009년부터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오케스트라의 연주활동과 함께 '하트 해피 스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트 해피 스쿨'은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출신 단원으로 구성된 '하트미라클로 앙상블'이 전국 45개 초등학교에서 펼치는 연주회와 퀴즈·영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식을 기념해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연주회도 열렸습니다. 임직원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과 직장인들은 한낮에 열린 감동의 연주에 귀 기울이며 가슴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내포상금 시각장애인단체 기부

글 조연국(분해2과) 자료제공 오재복(유형2과)

시각장애인들과 텀덤사이클(2인자전거)을 즐기며 우정을 나눴던 분해2부 봉사단이 또 하나의 뜻 있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수소2과의 업무 공적으로 획득한 사내 포상금을 (사)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울산지부에 기부한 것입니다. 수소2과는 2014년 안전시상에서 하반기 행동기반안전 관리(BBS) 우수부서로 선정돼 포상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에 과 소속 직원들은 주저 없이 분해 2부가 봉사로 연을 맺고 있는 해당 단체에 포상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분해2부 봉사단은 4월 11일 전달식을 겸해 봉사에 나섰습니다. 봉사단은 시각장애인과 2인1조로 자전거를 타고 주변 경치를 설명하거나 일상을 묻고 답하면서 정을 쌓아갑니다. 이날은 장애인 분들이 오키리나 연주를 들려주셔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옹기 체험

글 권영구(전기과)

계전부 봉사단이 우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마음 다듬기'를 주제로 옹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 지도에 따라 옹기를 빚고 체험마을 내에 있는 박물관도 둘러보면서 곁 고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날 고사리 손으로 만든 옹기는 후속 공정을 거쳐 한 달 뒤에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 후원

우리회사가 4월 17일 남산 백범광장(서울시 중구 소파로)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에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걷기대회에는 이창재 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회식을 가졌다. 이어 시민 7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범광장을 기점으로 시청 남산별관을 돌아오는 걷기대회가 진행됐다.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는 복지 종사자들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개최된 행사다. 우리회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내고 서울지역봉사단의 협력 기관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 전달

햇살나눔 서울지역봉사단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회사가 기부금 1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은 서울지역봉사기관 간담회와 더불어 4월 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혁 전무는 황용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과 만나 기부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실효 높은 나눔을 실천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사 정기봉사와 팀봉사로 협력하고 있는 기관 담당자 약 25명이 참석해 발전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화폭에 담백 봄꽃 내음

서양화 개인전시

글 이경삼(해상출하과)



울산 웅촌 선갤러리 문화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1년 전 다른 작가의 작품전시를 보러 갔다가 선갤러리 관장님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이뤄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작품이 준비가 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봄을 맞으면서 작품 주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 모티브를 꽃으로 정하고 전원 주변 지천에서 소재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려 소품 위주의 아크릴작품 30여 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회째의 개인전을 한다고 공장 여러 선후배들에게 축하와 함께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개인전에는 CEO께서 서양관 화환을 보내주셨고 공장 수석부사장님을 비롯, 김용연 전무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전시 중 눈길을 끌었던 것은 작년에 '25주년 근속' 기념으로 호주 여행을 다녀왔을 때 즉석 스케치 한 작품들입니다. 의외로 이 스케치 작품이 좋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시 오픈 전날에는 울산KBS 문화지도 프로그램에 전시회 소식이 방영되었습니다. 덕분에 작품을 구입하신 분도 있어서 더욱 인상에 남습니다. 비록 울산 외곽 갤러리에서 이뤄진 전시지만 다행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도와주시고 찾아와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운길산에

절정으로 꽃핀 동료애

Controller부문 춘계 산행

글 장성재(신용관리팀)



입사해서 세 번째로 맞는 부문 등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등산 소식을 듣고 입사 일 년여 만에 꽤 두툼해진 뺏살을 내려다보며, 평소 철저히 자기관리하지 못한 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시험보기 직전 버락치기하는 수험생의 심정으로 한동안 발길이 뜸했던 헬스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등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산행은 4월 18일, 운길산과 예봉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전 산행지에 비해 다소 거리가 멀어 산행 전날 일찌감치 잠잘 준비를 하면서 마실 물과 배고플 때 간단히 먹을 초콜릿, 점심으로 먹을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물품을 준비할지 몰라 허둥대던 작년에 비해, 나름 능숙하게 준비물을 챙기게 되니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집결지인 운길산역에서 이동경로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제법 긴데?' 하는 생각과 함께 본격적으로 산행 시작! 며칠간 내린 봄비로 날씨가 조금은 추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등산 당일에는 햇볕이 제법 따스했습니다. 막 돌아나가기 시작한 나뭇잎 사이로 화사한 진달래가 이곳저곳에 피어있어 정말 아름다웠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마침 운길산 진달래꽃이 절정인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번 산행에서 저는 그룹 후미에 서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의 산행을 도우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간단한 구급약을 챙겨 다니는 역할이었습니다. 덕분에 Controller부문 구성원들의 끈끈한 동료애와 등산 완주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산에 오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음에도

완주에 성공한 Mr. Waleed H. Jad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변 동료가 지친 기색을 보일 때마다 묵묵히 등산 템포를 늦춰 완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운길산에서의 하루가 저물자, Controller부문 동료들은 서로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을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마친 뒤에는 활기찬 마음으로 간단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노래를 같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덕분에 사무실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선배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층 짙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 내 가족만큼이나 더 오래 머물면서 마주할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발 맞추고

걷는 우리

진달래 아름다운 산에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IR팀 신동만 사우

모든 임직원이 IR의 주역입니다

저 개인의 이름으로 재무본부 표창을 받았지만 우리 팀을 대표해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 등 외부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팀원 모두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업무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부서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이 필요한데, 절대량의 정보가 타 부서와 정보공유를 통해 수집됩니다. 거대한 회사 조직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팀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회사의 가치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IR팀은 회사와 시장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만큼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투자에 관한 한 회사를 대표하니 늘 스스로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IR 업무도 한층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 재무본부 표창
- 공시담당자로서 공개실적 발표,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해 회사 수익 향상에 기여



젊은 팀에서 젊은 도전을 이어갑니다

현재 SUPER 프로젝트 가운데 주요 공장시설 개선 및 수익 창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입사 8년 차로 선배와 후배의 가교가 되어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작년 3월에 생긴 부서입니다. 베테랑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젊은 후배들이 많아 활기가 넘칩니다. 이 가운데 저는 선배들의 노하우를 젊은 부서원들에게 전하면서 당면과제를 당차게 실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들과 공감하고 후배들과 소통하면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애쓸 계획입니다.

SUPER 프로젝트,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의미 있습니다

SUPER 프로젝트의 일부인 '패키지 I'은 2016년 11월 완수를 목표로 하는데, 회사의 앞날을 좌우할 업무에 참여한다는 기분 좋은 책임감 아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엔지니어링 스테디를 이어오면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그 과정 속에 간절한 염원은 프로젝트를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입니다. 부서원 모두가 건강 챙기면서 일하자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상하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HOU혁신2과 윤효성 사우

• CEO 표창

•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아이디어 발굴 및 라이선서와의 소통에 기여했으며

부서 내 관리자와 주니어 사이의 가교역할 담당

No.1 주유소

전국 주유소를 찾아
성공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가치를 전하는
주유소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속초 구도일주유소



왼쪽부터 최귀녀 대표, 장일성 주유원, 송영창 대표

강원도 속초에서 우리 계열주유소 세 곳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다. 2010년 처음 여정주유소를 개업하면서 회사와 인연을 맺은 부부는 투명한 운영시스템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다지면서 거래를 확대했다. 속초 최대 판매량을 자랑하는 구도일주유소는 세 주유소 중 마지막에 문을 연 주유소다.

공부하는 자세로 시작한 주유소 사업

속초 구도일주유소는 송영창·최귀녀 대표부부의 세 번째 우리 계열주유소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던 부부는 경매로 주유소를 낙찰 받으면서 처음 주유소와 인연을 맺었다.

“여러 자영업업을 생각해봤지만 다른 사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유소 운영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거점사업이거든요, 정유제품은 인터넷으로 살 수 없고 싸다고 무작정 멀리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경쟁력만 가지면 충분히 상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창 대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학구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편이다. 주유소 개업을 결심한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관련 서적을 200권 넘게 읽고서야 첫 주유소는 문을 열었다.

한편 구도일주유소가 속초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송영창 대표는 겸손을 잃지 않는다. 특별한 영업 노하우를 물었더니 비결이 없다고 말하고 장점은 오직 고객신뢰를 얻게 할 정직뿐이라고 답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비스는 변해도 정직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책하고 실재는 다릅니다. 개업 1년간은 예상과 달리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택한 뒤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편이라 결정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의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객은 어떤 주유소든 반신반의합니다. 꾸준히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죠. 가장 좋은 주유소는 주유하고 주유한 사실을 잊을 만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주유소입니다.”

송영창 대표는 업계의 정품 전도사이기도 하다. 커닝을 해서 1등을 할 수 없듯이 1등 주유소가 되려면 정품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그런 면에서 에쓰-오일은 최적의 파트너였다. 힘과 연비,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에 믿음이 생겼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파트너입니다.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함으로써 브랜드는 동반상승효과를 냅니다. 에쓰-오일의 좋은 기쁨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근감 있는 ‘구도일’을 상호로 사용했지요.”

한편, 송영창 대표는 가슴 한 켠에 담아두었던 아쉬움을 전했다.

“‘믿음 가득 주유소’라는 품질보증 협약으로 즉각적인 품질 확인이 가능하죠. 이 좋은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주유소 사업자와 고객들이 에쓰-오일을 신뢰하도록 말이지요”

그는 주유소 사업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단순히 주유소 운영으로만 놓고 보면 운신의 폭이 좁지만 여러 사업과의 연계를 생각하면 그 중심에 주유소가 자리하면서 해낼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냥 있을 순 없죠. 세 주유소와 연계한 특화 세차장, 주변사업 쿠폰 발행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지역대표 주유소를 꿈꾸는 송영창 대표의 포부가 알맹이 짝 찬 과실처럼 단단하다.



최귀녀·송영창 대표부부

미니 인터뷰

구도일주유소는?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7번 국도 가운데 속초에서 고성으로 향하는 시내도 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며 총 3명이 근무합니다. 품질로 승부하는 믿음 가득 주유소를 지향합니다.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22 (조양동 650-14)
033)635-1951

목표와 포부는?

앞으로 두 곳 정도 더 에쓰-오일 주유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속초시민들에게 사랑받는 1등 주유소, 속초대표주유소가 목표입니다. 바른 주유소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족 이야기

사우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가족이라면
우리처럼

행복 꽃송이
피워요

동력3과 김규식 사우 가족

사랑으로 시작해 존경으로
화목을 키우는 김규식 사우
부부와 부모님은 마치
'가족이라면 우리처럼'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
서로에게 애뜻하다. 곧
태어날 아기와 더불어 모두
다섯 식구가 모처럼 사보를
통해 저녁 외식에 나섰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부모님으로부터 만족할 줄 아는 삶 배웁니다

땅거미가 질 즈음, 환칠한 키의 김규식 사우와 아내 윤수진 씨가 식당 앞마당으로 걸어 들어온다. 꼭 붙어서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던 부부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자 더 환하게 웃는다. 곧장 며느리에게 다가가 불편하지 않게 왔느냐며 안부를 묻는 사우의 부모님은 마치 딸 대하듯 스스럼이 없다.

“가까이 살아서 왕래를 자주 해요. 맛있는 게 생기면 오라고 하셔서 곧잘 찾아뵙곤 하는데, 저희를 무척 아껴주셔서 늘 감사해요.”

사우의 가족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꽃을 피운다. 짧게 건네는 눈빛, 말 한 마디까지 환하게 상대를 빛나게 한다. 둥근 마음씨를 가진 네 사람의 대화는 단정하고 소박한 흰 툴립을 닮았다.

“사소한 일에 행복하세요. 산에 가면 산에 가서 행복하다 하시고, 아들이 오면 아들이 와서 행복하다 하세요. 뭐든 만족하시면서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부모님이 롤모델입니다.”

7개월 태아 ‘꽃송이’, 행복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사실 저희가 혼수(?)를 미리 했어요. 처음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땐 놀라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더없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내의 뱃속엔 7개월 된 아이 ‘꽃송이’가 자라고 있다. 하늘에서 끝없이 떨어지는 탐스런 꽃송이들을 여러 번 끌어안았다는 장모님의 태몽 얘기를 듣고 붙인 이름이다. 이 자리에서 부모님은 태몽을 처음 들었다며 덕분에 좋은 얘기를 알게 되었다고 빙그레 웃는다.

“아들 녀석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오죽하면 경기도 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울산으로 온다고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에스-오일 입사시험을 치렀겠어요. 입사에 성공하고 가까이 와서 사니 좋더라고요. 그만큼 아기도 잘 키우리라 믿어요.”

부부도 부모님도 모두 꽃송이의 탄생을 고대해 마지않는다. 특히 경주에서 주말마다 식구들 먹을 농사를 짓는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 속에서 뛰놀게 하고 싶다고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항상 검소한 이 가족도 아이에게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가족 모두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이다.

“아내라는 보물이 생겼고 꽃송이도 사랑의 선물로 저희에게 왔어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제 동생과 꽃송이까지 데리고 제주도에 꼭 가보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부모님께

- 힘든 내색도 없이 한결같이 잘 지내줘서 고마워. 심하게 입덧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부모님, 아내를 자식처럼 받아주시고 다정하게 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손자 애교 많이 보여드리고 더 행복하게 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내가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 갑작스러운 결혼에 놀라셨을 시부모님. 부족한 며느리인데도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매번 나부터 생각해주는 규식 씨,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해요. 일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고마워요.

부모님이 아들 내외에게

- 너희를 볼 때면 서로 위하는 모습이 무척 예뻐 보인다. 며느리를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더구나. 지금처럼만 잘 지내주면 더 바랄 게 없어. 우리부터 마음을 열고 다가가라. 테니 지금처럼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꾸나.



수의사의 반려동물 대하는 법

반려동물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폭증한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원숭이, 개, 고양이, 구판조 등 지능이 높은 몇
몇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던 우리는 이제 벗
혹은 가족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일컫
는다. 종류 또한 다양해져 햄스터, 거북, 악어,
뱀, 고슴도치, 이구아나, 미니피그, 거미, 앵무
새 등 거의 모든 동물을 반려동물의 범위 안
에 포함시키는 시각도 있다.

순간의 충동으로 반려동물을 집에 들이는 경
우가 많고, 키우기 어렵다고 집밖으로 내보내
반려동물에서 '유기동물'로 쉽게 전락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책임지겠다'는 마음부터 단단히 가져라

동물에 대한 애착을 가졌다고 해서 무작정 반
려동물을 입양해서는 안 된다. 1인가족일 경
우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동물을 대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고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을
때 입양해야 한다. 다인가족인 경우에도 책임
감은 중요한 덕목이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로 키우는 동물은 수명
이 긴 편이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보살
피겠다는 굳건한 마음, 다짐이 필요하다. 특히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좋다고 반
려동물을 들였다가 책임감 없이 내보낼 경우
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집에 들일 때는 행복만 들이는 게 아니라 예
상과 달리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가능성까지
끌어안는다는 말이다. 수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특정 동물'에 대한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 유행이 지나가면 가벼운 애정도
덜달아 식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지능이 높은 반려동물일수록 인간과 비슷한 성장주기와 사회화과정을 겪는다. 특히 개와 고양이처럼 흔하게 입양하는 반려동물이 여가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으며 2차 성장을 겪는다. 이 말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버릇이 드는 중'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동물의 삶과 생육조건, 특징을 알아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할 수 있다. 특히 입양할 때와 건강이 나빠졌을 때의 행동을 알아둬야 한다. 특히 농장에서 분양받은 반려동물은 질병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으로도 방어되지 않는 질병이 생각보다 많다. 정밀하게 검사를 받은 뒤 병이 잠복기에 있는 상태라면 항체주사를 맞춘다.



생명의 존엄, 가치관을 바꿔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사람이 다른 동물, 나아가 생명체에 대한 애정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키우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유기하는 경우, 내 반려동물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하는 경우에도, 상하관계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한 가지 명심할 점은 그들이 숨 쉬는 존재라는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재인식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봐야 한다.

최근에는 동물실험, 식육을 위한 도살 등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상황에도 동물을 존중하는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한 마리 동물의 생명을 다른 동물의 눈앞에서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다. 먹는 동물의 경우에도 무조건 가슴아파하기보다 희생을 통해 다른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금상첨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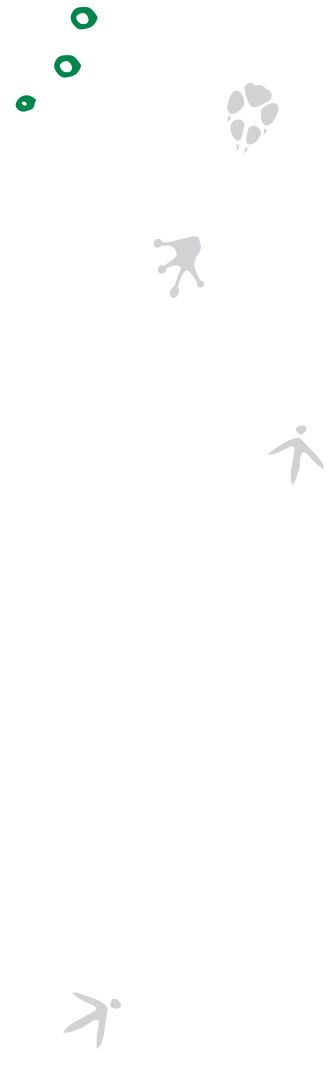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야생동물을 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길을 가다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운전 중 야생동물을 치었을 때 당황하기 쉽습니다. '관할 관공서'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서울이나 큰 도시라면 구청, 다른 시·군 단위에서는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 신고하면 당장 조치할 부문을 알려주고 처리해줍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www.karama.or.kr에 방문해서 알아보세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 마음의 미술관

사우들의 여가에 풍성함을 더할
전국의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도움말 최지순 학예연구사 사진 디자인소호

강릉은 문예 도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가인 김시습과
최초의 한글소설가 허균이
태어났고 조선의 대표적인
여류시인인 허난설헌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울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강릉에
강릉시립미술관이 있다.

지역 미술작가들의 사랑방, 강릉시립미술관

강릉시 교동은 강릉을 대표하는 향교가 위치한 유서 깊은 지역이다. 그다지 높은 곳이 없는 이곳 교동에서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 강릉시립미술관이 있다.

강릉시립미술관은 예전에 시립도서관이었다. 도서관 기능을 다하고 사용하지 않던 건물을 2006년에 리모델링해 강릉미술관으로 개관했는데 당시만 해도 정식 미술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등록인 상태였다. 그러다 2013년 4월 강원도 유일의 시립미술관으로 재개관해 그해 7월 정식 미술관이 됐다.

미술관 건물의 내부구조는 미술작가들의 전시 의욕을 절로 솟게 한다. 미술관은 아담한 2층 건물에 아기자기한 짜임새로 이루어졌는데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드러난 기둥과 꺾인 공간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편 다양한 전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관료가 저렴해 지역미술작가, 신진미술작가의 대관요청도 줄을 잇는다. 덕분에 1년에 60회 이상의 전시가 진행되는데 단순히 계산해도 매주 한 개 이상의 전시가 열린다. 알차게 전시를 마련하다 보니 미술작가들이 마주치는 일도 빈번해서 지역미술작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수요일

미술로 아름다운 언덕

강릉시립미술관





편안하게 드르는 미술관, 문화저변 확대를 꿈꾸다

강릉시립미술관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잇고 있다. 한국 고유의 전통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작가들의 전시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특히 여류작가의 요람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고 단오제, 커피축제 기간에 여류미술작가의 전시를 더욱 다양하게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작은 미술관이라 소장품이 적지만 새로운 시도는 끊임이 않는다. 개관 초기에는 미술을 접하기 어려운 분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술교육 '움직이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오는 8월에는 야외영상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 영상미술작가 3명이 참여하는데, 8월 매 주말을 이용해 미술관 벽면과 숲을 스크린 삼아 영상전시를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는 피서를 마친 뒤에 강릉미술관에 들러 전시를 보고 인근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강릉미술관은 대관전시를 줄이고 기획전시를 늘릴 계획이다. 지역 미술작가들의 활동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점차 지역주민들에게 완성도 높은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서다. 또 작은 카페를 마련해 방문 관람객의 편의를 돕겠다고 한다.

강릉시립미술관은?

주소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219-7 (교동 904-14)

대표번호 033)640-4271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휴관

최지순 학예연구사가 전하는 강릉시립미술관 깨알정보

- 수요일을 공략하세요. 강릉시립미술관의 새 전시가 시작되는 날로 오픈행사를 접할 수 있고 때로는 한꺼번에 여러 전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 저녁에 찾아오세요. 강릉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해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 강릉단오제, 커피축제 기간에 들르세요. 이때 즐길거리가 가장 많습니다. 미술관의 전시가 가장 다양하게 마련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 2번 전시실을 둘러보세요. 기둥과 벽이 숨은 공간을 만들어내 보물창고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섬을 걷다
아름다운 섬이 품은 길을
찾아 갑니다

글 · 사진 전부순



서해 한복판에 자리해 '중국에서 우는 닭의 울음소리까지 들린다'는 외연도는 푸른 바다와 상록수림이 어우러져 힐링의 대명사로 사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서해 꼬트머리 연기에 가린 듯

신비한 보물섬

보령 외연도

육지의 일부가 바다나 강, 호수로 둘러싸인 땅이 섬이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4천 4백여 개의 섬이 있고, 그중 유인도가 5백여 개, 나머지는 무인도다. 섬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다. 방송 · 신문 · 잡지 등 매체를 통해 몇몇 섬들이 소개되어 섬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특정한 섬에 한정되어 있다.

지리적 고독감과 척박함, 현실에서 벗어나 낭만으로 향한다는 느낌은 섬이 지닌 독특한 매력이다. 섬은 일단 배를 타고 가야하기 때문에 날씨가 변수인데 이 또한 매력적이다.

느릿느릿한 여유가 넘쳐나는 충남 대천여객선터미널에서 외연도행 쾌속선 '웨스트 프린티어호'에 몸을 싣는다. 오전 10시 정각, 배는 긴 고동소리를 한 차례 울린 뒤 서서히 거울 표면처럼 맑고 잔잔한 바다로 나가 올망졸망한 섬들을 스치고 망망대해 속으로 스며든다. 대천항에서 53km, 녹록치 않은 뱃길은 호도와 녹도를 거쳐 12시 지나 '맑은 날에는 중국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외연도항에 도착한다.

횡건도 · 대청도 · 오도 · 수도 · 황도와 함께 외연열도(外煙列島)를 구성한 외연도는 그동안 오지였다.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산도, 매물도와 함께 '가장 가고 싶은 섬'으로, CNN은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섬 33선'으로 뽑았다. TV프로그램 '박2일'에 노출된 뒤 한창 유명세를 떨치는 외연도는 동쪽 봉화산(279m)과 서쪽 망재산(171m)이 마치 날개를 펼친 박쥐 모양새다. 면적은 0.53㎢로 현재 180여 가구, 4백여 명이 항구 근처에 살면서 대부분 고기잡이에 종사한다. 한 아주머니는 크고 작은 어선들이 가지런히 정박한 모습에 "한 척에 몇 천에서 몇 억씩 나가는 배"라면서 "요즘은 일꾼이 모자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있다"고 귀띔한다. 봄볕에 앉아 그물수선하는 젊은 이방인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어디서 왔



햇살이 따듯한 언덕에서 한 아낙이 봄 마중 나온 나물을 캐고 있다.



누적금에 설치한 야영사이트 전경. 해안 곳곳에 마련한 전망대를 비롯해서 누적금과 돌석금에 야영 공간을 마련, 백패커들은 멋지고 매력적인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에서 받아 충청수영에 직접 보고했다. 봉화는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야 다음 봉수대로 전달되기에 연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쇠종과 말뚝을 땔감에 섞어 피웠다. 약천후로 연기와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로 달려가 알렸다. 외연도가 왜적과 중국, 이양선 출몰에 대응하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상요지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노랑배 삼거리로 하산한다. 바다와 나란히 뻗어나간 평탄한 길을 지나 데크로드에 들어서면 '해막'이다. 풍어당제가 열리는 동안 '피 부정'을 막기 위해 세운 오두막, 지금은 수풀이 우거지고 터만 남았지만, 마을의 임산부들은 동제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격리되어 생활했다고 한다.

약수터에서 목을 축인 뒤 멀찌감치 보이는 명금과 작은 명금, 돌석금을 향해 억새와 시누대 사이로 난 들길을 따른다. 해변마다 특화된 형상들로 길손의 눈은 오랜만에 호강에 겹다. 햇살을 받은 변성암·화강암·퇴적암이 금처럼 빛나서 '명금'이다. 물빛이 고운 '작은 명금'은 주먹만 한 몽돌이 해안을 이루어 모래사장이 없는 외연도에서 해수욕하기 그만이다. '매배'는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땅으로 병풍을 둘러친 모양의 해안절벽이 아름답다. 고래를 닮은 고래바위의 실제 이름은 '관장도'다. 머리에 쓰는 관을 닮은 바위섬은 새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아량을 베푼다.

시누대 터널을 만나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니 손바닥만 한 해변에 마치 벚단을 쌓은 듯한 '누적금'이 우뚝하다. 아주 옛날 외연도에 심한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였다. 때마침 쌀을 실은 세곡선이 지나가자 전횡(田橫) 장군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배를 끌어와 마을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살렸다는 설화가 전한다. 한편 누적금과 돌석금, 해안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 데크에서는 텐트를 칠 수 있어 백패커들은 매력적인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다음날 아침, 여유를 갖고 망재산(171m)을 향한다. 선착장에서 테마공원을 지나 한국전력 옆길로 오르면 망재산과 고라금을 알리는 이정목이 있다. 계단 아래는 외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다는 해변, 너럭바위들이 널려 있는 '고라금'이다. 여기서 오른쪽 숲길로 들어서 호젓한 해안길을 따라 20분쯤 가면 갑자기 드넓은 초지와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에서 보면 해변 바위가 고래의 생식기처럼 생겼다 해서 '고래조지'인데, 서쪽으로 황견도와 대청도, 중청도가 전망된다. 파란색 바위가 많아 청도라 불리는 섬 중 가장 크고, 고려의 충신 최유엄이 유배를 왔음에도 천하 낙원이라 극찬을 했다는 대청도는 바다 밑에 커다란 해저터널이 있다고 한다. 남쪽은 바로 앞에 당산양도, 그 뒤로 오동나무가 자생하는 오도가 겹쳐진다.

망재봉을 오른다. 가파른 길이 희미했으나, 에둘러 난 길을 찾아 정상에 오르면 봉화산 아래 웅기종기 들어선 어촌마을이 양중맞게 눈에 들어온다. 하산은 서방파제 쪽으로 길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니 방파제는 온통 그물로 뒤덮였다. 그물을 손보는 어부의 잔 손놀림, 팍팍한 바다에서 삶을 일구는 또 다른 모습이다.

트레킹의 묘미는 뒤를 돌아보는데 있다. 숨 가쁘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자신을 반추할 수 있어서다. 짧은 여정에서 부딪치는 하나하나가 역사이고 또 교훈이 아닌가.

마지막 여정인 당산을 향한다. 서부두 일대는 대형 플라스틱 통이 가득하다. 예전의 액젓생산지답게 멀치와 까나리 젓갈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반면, 수령 2백 년 된 팽나무가 가지를 치켜 올려 마을을 지킨다. 담벼락에 그려진 돌고래와 대형 로봇물고기, 게, 꽃그림을 구경하며 동백나무에 둘러싸인 외연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천연잔디라서 더욱 멋스럽다.



당산의 동백나무숲에 있는 전횡장군사당은 1936년 독지가의 도움으로 세웠다. 현재는 17㎡ 남짓한 아담한 크기의 목조건물로 맞배지붕이다. 출입문 위에 '전공사당기(田公祠堂記)'가 걸려 있다.

학교 옆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수령 5백 년 이 넘는 후박나무와 미처 꽃송이를 떼어내지 않은 동백나무, 식나무, 붉은가시나무 등의 상록수림과 하늘 높이 솟은 팽나무, 상수리나무, 고로쇠나무, 참피나무 같은 낙엽활엽수가 빼곡하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록수림의 하나이자 수백 년 섬마을을 지켜온 '외연도 상록수림'이다. 도서지역 원시식생을 잘 보존하고 생물학적 연구가치도 높아 1962년 천연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됐다.

지난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이란 대형 태풍을 맞아 많은 고목이 쓰러졌다. 보령시는 수림지 복구를 위해 주변 대숲을 정비하고 상록수림에서 성장한 2~3년생 어린 치수들을 키워 옮겨 심었다. 강한 바람에 꺾이거나 해풍으로 고사되는 고목들을 대체한 후 계속이다. 이들이 자라 상록수림이 생태적 안정은 물론 영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전횡 장군을 모신 당산에 도착한다.

맞배지붕 건물은 소담하면서 위엄이 서렸다. 문이 잠겨 창살을 통해 본 내부는 네 개의 위패가 봉안되었는데, 정면 전횡장군신위를 중심으로 좌우에 당산신위(堂山神位)와 도당신위(禱堂神位)를, 오른쪽 선반에 소저아지씨신위(小姐阿只氏神位)가 놓여있다. 사당제를 지낼 때 당산신위와 도당신위에 치마저고리 한 벌씩 제단 위에 바치는 것으로 보아 두 신격은 여성신임을 알 수 있고, 마을에서는 전횡장군의 부인과 딸로 생각한다. 오른쪽 소저아지씨 역시 여성신이 분명하나 치마저고리를 올리지는 않는다. 소저아지씨 또한 전횡의 딸로 불린다.

전횡 장군은 한나라 유방과 동시대를 산 실존 인물로서 다음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때는 춘추전국시대. 중국 제나라 왕(전제)의 아우 전횡은 나라가 멸망하자 군사 5백 명을 이끌고 반야도(외연도 옛 이름)로 망명하여 지금의 당산 숲을 이룬 동백을 심었다. 어느 날 그는 한 고조 유방의 부름을 받는다. 반란에 대비해 그를 휘하에 두려는 속셈이다. 그는 군졸들을 바닷가 한 섬에서 기다리게 하고, 부장 둘만 데리고 가던 중 낙양 근처에서 "나는 유방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목을 가지고 가면 너희들은 해를 피하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장 둘은 전횡의 목을 유방에게 바치고 나와 자결했다. 섬에서 이 소식을 들은 5백 군졸들도 함께 자결했다. 이후 전횡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제물로 지태(황소)를 잡아 전횡장군신과 용왕신께 매년 정월보름 제사를 지낸다.

외연도 주민들이 전횡을 마을신·수호신으로 모신 이유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된 모습이 바다에서 삶을 일궈가는 어민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간신앙에서 비운의 역사적 인물을 신격화하여 당신(堂神), 특히 풍어신(豊漁神)으로 모신 것은 소망 희구 대상으로 의미가 크다. 특이한 것은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전횡 장군을 민간에서 신으로 모신 예가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선착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드넓은 초지가 펼쳐지는 '고래조지', 서쪽으로 횡건도와 대청도와 그 옆에 붙어 있는 중청도가 전망된다.



마을을 탐방하면서 담벼락에 그려진 그림을 보는 재미도 각별하다.



대부분 바른 자세보다 편한 자세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른 자세가 신체 균형을 오래 유지케 하는 안정적인 자세라면, 편한 자세는 자세 유지에 필요한 힘을 줄여 안정감을 주는 자세다. 편한 자세 가운데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게 하는 일부 자세의 경우 건강을 망친다. 특히 목 건강과 관련해 편한 자세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바른 시선 처리는 목 건강의 기본 자세

목 자세 습관

편한 자세가 목 건강을 망친다

목 건강과 관계된 자세는 대부분 무언가를 보려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특히 편안한 자세와 본다는 행위가 만날 때 목 건강을 해치는 자세가 많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바닥이나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본다. 누운 자세는 신체의 많은 부분을 벽, 바닥 등에 달게 해 자세 유지에 필요한 힘을 최소화함으로써 신체의 피로를 푸는 편안한 자세다. 그런데 누운 자세와 보려는 행위가 만날 때 목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자세가 연출되곤 한다. 머리 방향을 한쪽으로 틀거나 턱을 당기는 자세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목 건강에는 가장 좋지 않다. 텔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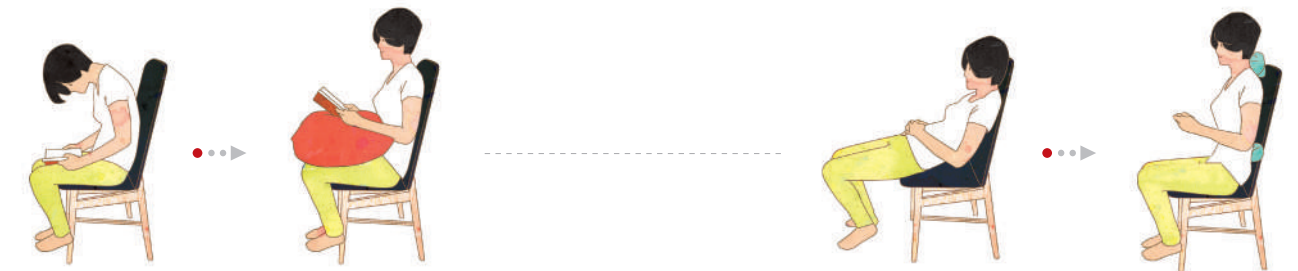
- 텔레비전을 볼 때는 혹여 눕고 싶다면 목이 바르게 펴지도록 옆으로 눕고, 가능한 한 높지 않은 베개를 본다.

전 시청의 예를 드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무척 오랫동안 집중함으로써 같은 자세를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옆드려 책을 읽는 경우, 앉은 상태로 뜨개질을 하거나 독서하는 경우에도 과도하게 목을 꺾게 된다. 이때는 누웠을 때보다 머리 무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목에 더 큰 부담을 준다.

보는 행위를 위한 바른 자세

특히 최근 들어서는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횟수와 시간이 늘면서 목디스크, 거북목증후군 등 경추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사무직의 경우 8시간 이상 모니터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출퇴근길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게임이나 채팅에 몰두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다. 작은 글씨를 들여다보기 위해, 더 집중하기 위해 무심코 모니터와 액정화면에 코를 박곤 한다. 이 자세가 반복되다 보면 일자목, 거북목이 되거나 심한 경우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생긴다.

답은 가까이 있다. 보는 행위만을 위한 공간 극장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여 동안 극장 화면에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의 좌석은 '보는 행위'를 위한 안정적인 자세, 바른 자세를 위해 설계되어 있다. 고개를 들되 앞으로 내밀기보다 등받이에 기대도록 했다. 엉덩이를 앞으로 쪽 빼고 앉으면 자세가 낮아져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좌석 깊숙이 앉아야 하는데 이는 동시에 고개가



•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적당한 눈높이로 책이나 스마트폰을 들어올려준다. 쿠션을 이용하면 좋다.

•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면 목이 꺾이기 쉽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목과 허리에 쿠션을 받친다.

앞으로 꺾이는 걸 예방한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는 위의 자세를 응용해보자.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지 않으려면 손이나 보조물로 적당한 높이까지 책,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주면 된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당당하라

개인의 영역을 남에게 쉽게 내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이 심리적 방어기제가 목 건강과 관련한 독특한 자세 습관을 유발한다. 사무실에서의 모니터 방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스마트폰 위치와 관련한 습관이다.

의자에 앉았을 때 모니터를 정면이 아닌 쪽에 두거나 정면이더라도 각도를 틀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 하는 경우인데 목을 한쪽으로 오래 꺾게 돼 목 건강을 해친다. 대중교통 안에서의 스마트폰 이용도 마찬가지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가슴 가까이 당겨 보는 행위가 내 목을 망칠 수 있다.

나의 롤모델

사우의 롤모델로부터
성공 열쇠를 찾아봅니다

글 박민(기계1과)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랑꾼

기계1과 박민 사우의 롤모델
가수 '선'



내 인생의 롤모델

대중매체를 통해 가수 '선'의 선행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 안에서 선은 불우이웃을 도우며 자기 일처럼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그의 선행은 늘 주목받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마라톤 1km당 만 원씩 적립하는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선은 가정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데, 빈말이 아니라고 느껴진다. 선의 가족 역시 모두가 참여해 선행을 베풀어 모범이 되고 있다.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면서 남을 위해 베푸는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닮고 싶다.

“세상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 나의 세상이 만들어진다.”

- 가수 선



힙합전사? 불우한 이웃의 어려움을 쫓는 사랑의 전사!

선의 본명은 노승환으로 힙합듀오 지누선의 멤버다. 지누선은 1997년 데뷔곡 '가솔린'으로 데뷔했고 엄정화가 피쳐링한 '말해줘'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았다. 특히 70만 장의 음반판매고를 기록해 국내 힙합 앨범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선은 1993년에 현진영과 와와 3기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듬해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백댄서로 활동하며 소속사 사장인 양현석과 인연을 맺었다. 선을 눈여겨 봐둔 양현석에 의해 지누선의 래퍼로 거듭나게 된다. 지금은 '가수 선'으로 알려지기보다 아내 정혜영과 함께 여러 선행에 앞장서는 기부천사로 더 유명하다.

부부는 사랑의 밥퍼 봉사, 만 원의 기적 캠페인, 마라톤 기부, 홀트아동복지회 후원, 연탄나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부부는 결혼기념일마다 1년간 매일 1만 원씩 모은 365만 원을 후원하며 사랑의 밥퍼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만 원의 기적 캠페인은 1년간 모은 365만 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함으로써 1만 명의 마음을 모아보자는 취지의 활동이었다. 2013년에는 어린이재단 병원 건립을 위한 1년 계획을 세우는 등 매해 실천할 기부 및 봉사 계획을 세운다.

특히 선의 푸르메재단 마라톤 기부는 '굿 액션 by 선' 프로젝트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장애어린이들의 희망이 될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1m를 달릴 때마다 100원씩 기부하는 캠페인인데, 선은 뛰는 와중에 발톱이 빠지는 고생을 감내하고 1만km를 뛰어 약속을 지켰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아동들에게도 매달 수천만 원씩 기부·후원하는 선과 정혜영 부부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해도 약 36억 원 가량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부부는 평생 나눔을 실천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진정한 기부천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



발로 뚫 오사카 들여다보기

〈클로즈업 오사카〉 유재우 · 손미경

발간 직후 지금까지 5년에 걸쳐 일본 여행서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이드북이 있다. 〈클로즈업 오사카〉가 그것이다. 저자인 유재우 · 손미경 씨는 부부 여행작가로 유재우 씨는 〈해외여행 100배 즐기기〉 시리즈를 탄생시키고 이끌어온 주역으로 유명하다. 그는 40여 국 500여 도시를 여행했는데 첫 해외여행자가 일본이라는 점에서 〈클로즈업 오사카〉는 그에게 더욱 각별한 책이다. 2006년에는 한일 관광교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문화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이 수여하는 한일관광교류대상 일본 국제관광진흥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클로즈업 오사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오사카 전역을 여행한 작가가 내놓은 실전 여행서다. 변화와 변신을 거듭하는 도시 오사카는 일본에서도 여행 정보가 가장 빨리 변화기로 악명이 높는데 그런 면에서 오사카의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사라진 음식점을 찾아가는 헛걸음이 최소화된다는 말이다.

오사카는 식도락의 도시다. 음식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이 책에서는 저자가 직접 찾아가 맛본 싸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점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칸사이 1천 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베스트 포토스팟, 야경 포인트, 저렴한 한인민박과 비즈니스 호텔, 쇼핑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 책 속의 책으로 여행에 필요한 오사카 세부지도 서른 가지는 일본여행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

66

오사카는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린다.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본 상업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더 깊이 담겨 있다.
도쿄와 더불어 일본의
상권을 동서로 나누는
한편 일본의 2대
교통중심지이기도
하다.



〈클로즈업 오사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선택해 읽었다. '객관성'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여행 전에는 전문책자에서 평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를 원했다. 교통, 식당, 관광 등 여러 정보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것은 숙박 정보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편안한 잠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숙박 마련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여행지에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것이 싫고, 지도 한 장이나 책 한 권을 들고 낭만 가득한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 추천한다.

- 글 김관희(시설투자기획팀)

문화 콘텐츠

〈클로즈업 오사카〉와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 전시 }



〈일본에 남겨진 우호의 기록, 조선통신사〉

한국과 일본의 사절단

2015년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두 나라가 문화를 교류하면서 돈독한 우호를 쌓은 대표적인 예가 조선통신사다.

이번 전시에는 1711년 통신사 일행 중 최고 관리인 정사(正使)로 파견되었던 조태억의 작품인 〈기마도(騎馬圖)〉와 1811년 화원(畫員)으로 참여했던 괴원 윤지한이 일본에 남긴 그림인 〈화조도(花鳥圖)〉가 전시된다. 특히 통신사의 접대 업무를 담당했던 일본 유학자인 니와 쇼도우가 통신사의 정사 조엄에게 선친의 비문과 명문을 지어달라 부탁하기 위해 보낸 편지와 함께 통신사가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국서를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일본식 판화가 최초로 공개된다.

일시 | ~2015년 6월 11일까지
장소 | 한림대학교 박물관 진열2실

{ 전시 }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

로마제국 도시로 떠나는 산책

해외의 풍광과 유물은 보는 이의 눈을 틔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 어렵다면 사진전이나 유물전을 통해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울산에서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전이 열린다. 폼페이는 고대 로마의 도시로 로마 귀족들이 별장을 건설하던 휴양지였다. 하지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는 한순간에 매몰되고 말았다. 하지만 운하를 건설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건물과 회화작품들이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도시의 4/5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울산 폼페이 전시에서는 유물 300점이 전시되어 당시 로마제국 사람들의 생활문화상을 알 수 있다.

일시 | ~2015년 6월 30일까지
장소 | 울산박물관 기획전시실

{ 드라마 }



〈수사지도의 여자〉

교토를 관광하듯 즐기는 영상

일본 오사카를 관광할 때 하루 일정으로 교토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꽤 많은데, 교토가 일본의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토를 배경으로 드라마 〈수사지도의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 여형사가 교토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교토 지도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추리물임에도 스토리 자체가 뻔하지만 범인이나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형사가 되짚어가며 사건을 해결한다는 콘셉트 덕분에 교토의 구석구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르 | 추리
방영기간 | 2012년 10월 18일~12월 6일(7부작)

독자 광장

S-OIL MAGAZINE

Vol.402

2015 May

Quiz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이상준 Aromatics생산2과

조연환 전주지사

김종현 인천저유소

손종면 에이스주유소(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USB저장장치

임종의 동력4과

남경미 대구지사

이재두 청도고속주유소(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차종석 삼보주유소(광주시 동구 필문도로)

새로운 도약을 향한

성장의 기록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
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
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
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
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이달의 엽서



<주요 경영활동·CEO 동정> '과학경제아카데미' 수료식

과학에 흥미를 가진 이들을 떠올리며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_ 정종구(탈향과)



<열정 24시> 사내 표창자

오랜만에 입사 동기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보게 되니 반가웠습니다.

_ 여진수(자재관리과)



<포켓 석유상식> 옥탄가와 세탄가

자동차 연료에 대한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됐습니다.

_ 이영석(솔일주유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두런두런 수다방> 사택 벚꽃축제

참석하지 못한 축제를 사진으로나마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_ 최용관(수소3과)



<애호가들의 수첩> 캠핑전문가들의 캠핑 즐기는 법

마음은 있지만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캠핑을 시작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_ 정성민(Aromatics생산과)



<섬을 걷다> 거제 내도-지심도

따뜻한 봄날, 건조 심은 섬길을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_ 김태원(김기환 구매팀리더 자녀)

〈산을 향하여〉



조선 전기의 문인 양사언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라고 했다.

5월, 청록의 산을 향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가자.